

근친상간으로 인한 가성경련발작 1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연 규 월

= Abstract =

A Case of Pseudoseizure Due to Childhood Incest

Kyu Wol Yu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ens University

One case is described in which pseudoseizure developed after father-daughter incest and disappeared after psychotherapeutic exploration of the incestuous experience. Patient was young adult female referred for seizures, suicide attempts, self-destructive ideations and acting outs, and dissociative symptoms. It is suggested that, female young adults presented to the clinician with symptoms of pseudoseizure, a detailed history should be taken to explore for the possibility of incest.

KEY WORDS : Pseudoseizure · Dissociation · Incest.

서 론

가성경련발작은 기질적 원인은 없으나 경련과 유사한 발작적 행동이 초래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작은 경련을 주소로 내원하는 외래환자의 약 1/5, 입원환자의 경우엔 약 1/2로 추정된다¹⁾.

임상가들은 가성경련발작의 대부분이 정신과적 기전에 의해 초래된다고 동의하고는 있으나 가성경련발작과 연관된 특이한 정신과적 진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조사가들은 진성경련발작환자에서 보다 가성경련발작환자에서 우울증²⁾³⁾, 성격장애⁴⁾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가성경련발작의 1/2 이상이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며, 80% 이상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³⁾⁵⁾⁶⁾.

가성경련발작 환자는 두가지 분류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첫째는 최근에 경련이 시작된 경우로, 입증할 만한 스

트레스가 있으나 심한 정신병리는 없고, 예후가 좋은 경우이며, 둘째는 오랜기간 경련을 한 경우로 오래지속된 심한 정신 병리를 갖고 있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이다³⁾⁵⁾.

가성경련발작은 일찍이 2세기경 그리스 내과의사인 Galen이 처음으로 소아기 성학대와 연결시킨 바 있으나 최근에 와서야 많은 보고가 성학대가 가성경련발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¹¹⁾. 몇몇 보고는 가성경련발작이 성적 갈등이나 성학대를 정신치료과정중에 강조함으로써 발작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⁸⁾¹⁰⁾. 성학대중 특히 근친상간이 가성경련발작 증세를 초래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신병리로 작용한다는 외국의 사례보고⁸⁾¹²⁾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보고가 없는 바, 저자가 최근 치료했던 경련발작 환자 중 근친상간으로 인해 해리증상과 가성경련발작을 초래한 사례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23세의 미혼 여자로 1995년 1월 말경 우측 측두부의 심한 두통과 속이 메스껍고 뒷목이 뻣뻣해지더니 갑자기 숨을 몰아 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온 후 곧 회복이 되었으나 평소 경련발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내원했던 환자이다.

현병력 : 환자는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편두통이란 진단하에 약물을 복용한 바 있다. 그 후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삼수하는 동안에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고 잔 후 아침에 깨어나기 전 경련발작을 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 후 상태가 좋아졌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리사원으로 일하였다.

환자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화려한 복장을 좋아하고 화장도 짙게 하고 다녀 주위에서 텔런트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모에 관심이 많고 이기적이라 친구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직장에서도 사장 딸이라는 위치 뿐아니라 신경질적이어서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다.

환자는 동료들과의 다툼이 있을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하여 아버지를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인처럼 다루기도 하였고 아버지 또한 환자에게는 잔소리 하나 하지 않고 모든 짜증을 다 받아 주었다.

작년 가을 거래처 수금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착오가 생겨 거래처 사장과 언쟁이 오간 후 갑자기 회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간 일이 있었고, 그 후 여자 친구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를 않자 또 싸우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다.

내원 이틀전엔 남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 둘이 소주를 마시고 나오다 길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헉헉대더니 또 쓰러져 응급실에 왔었고 곧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간 후 다음날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다가 도중 또 한차례 경련발작을 일으켜 중단하고 외래로 내원하였다.

개인력 및 가족력 : 환자는 1남1녀 중 막내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나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부모 밑에서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자라왔다. 정상 분만했

며 3세때 설사와 고열로 인한 열경기를 한 적 있고 그 후 국민학교때까지 간헐적으로 설사를 하는 등 위장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신체발달 상태는 매우 좋아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숙성하였고 얼굴이 예쁘고 정신연령도 조속하였다.

국민학교 5학년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잠시 경제적 타격이 있었는데 이때 부모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아 어머니는 새벽기도회에 자주 나갔고 친정에 가서 있다 오는 일이 잦았다. 그때까지 환자는 부모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부분을 더듬고 하는 등 성학대 증상을 보이자 매우 당황하고 놀랐으나 아버지의 행동이 무섭고 또 누가 알까봐 말도 못하고 지내오다가 어느 날인가 성적접촉까지 당하게 되었다. 그 후 이런 행동은 환자가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중1말에 초경이 나오면서부터 환자는 지나치게 신경질이 많고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했으나 어머니는 사춘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아버지 사업재기 문제로 딸에게 큰 관심을 주지 못했다. 고2때부터 환자는 학교에서 수업도중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쓰러진 바 있어 개인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질증상인 것 같다는 말에 뇌파검사를 실시했으나 정상으로 나와 편두통이라는 진단하에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1달에 평균 1~2번씩은 쓰러져 집으로 왔고 결국 대학입시에서 떨어지고 삼수하는 동안에도 경련발작이 자주 있었으나 그때 그때마다 약간 복용했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이젠 시집도 가야하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하여 외래로 데리고 왔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 처음엔 성공했으나 환자가 국민학교 5학년때 망한 후 다시 유리공장과 건축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많이 벌며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성격이 매우 급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폭주를 하여 실수를 많이 하며 남한테는 매우 엄격하고 인색하나 환자에게만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용돈도 마음대로 주며 자신의 현금카드도 환자가 관리하게 하는 등 너무 밀착되어 환자 어머니의 불만이 많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상담하는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어 병원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심지어 환자에게 병원의 의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도 하나 실제 병원에 내원한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에 아버지에게 매우

순종적이나 평소에 두통과 불안증세가 있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환자가 어렸을때 새벽기도회에 자주 나갔고 최근에 정신과 의사에게서 약물을 처방 받고 있다. 환자 자신이 근친관계를 숨기고 있고 치료자에게도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죽는다, 어머니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불쌍하다며 비밀유지를 부탁하고 있지만 어머니 자신도 환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지나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또 남편의 딸을 대하는 태도가 정도이상인 것 같아 의아해하고는 있으나 부녀간의 근친상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오빠는 대졸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 아버지 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지는 않고 다른 곳에 취직하려는 생각이 많다. 환자를 잘 이해하고 비교적 환자에게 포용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성격이 온순하며 집안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법이 거의 없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자식이다. 환자도 오빠를 좋아하고 따르며 어머니가 오빠를 더 사랑하지만 큰 불만은 없다고 한다.

정신상태 검사 : 1995년 1월 말경 외래로 내원했을 당시는 경련발작을 한 다음날이라 심한 두통과 메스꺼운 증상, 불면증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으나 치료자에게 협조를 잘 하고 관심과 동정을 사려는 표정이 엿보였다. 비교적 성실하게 대답했고 그 동안 좌절이 쌓여 있었고 자격지심에 괴롭다면서 울면서 이야기했다. 감정변화는 상당히 쉽게 일어났지만 감정의 깊이는 매우 얇은 편이었다. 내적으로 불안해 보였고, 사고장애는 없었으나 단기 기억력이 다소 감퇴되어 있었고 지각장애를 호소하여 이인증, 비현실감, 환청이 있다고 하였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밤에 불을 끄고 자면 사람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불을 켜놓고 잔다고 하였다. 지남력, 사고력 모두 정상이었고 병식도 있었다.

일반 이학적 검사 및 뇌파검사, MRI검사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그러나 심리검사 소견에서 과거 외상적 사건에 대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고 타인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렵다는 반응과 더불어 모친과의 밀착된 관계, 부친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이성에 대한 양가적 감정 등이 표현되고 있었다. 성격은 히스테리성 성격 특징이 뚜렷하고 우울반응이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방어상태가 무너지면서 퇴행적, 때로는 정신증적 반응을 단기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 치료경과 : 1995년 1월 말경 초진 당시엔 경련발작에 대한 기질적인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Xanax 0.75mg과 Mydrin 3tab을 처방하였고 2~3일에 걸쳐 뇌파 및 MRI,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후 EEG, MRI가 정상으로 나왔고 그동안 경련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과 정신치료를 병행하기로 환자와 약속을 하였다.

일주일후 환자는 병원에 온 지 3일후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아래층에 대고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도 없고 무서워서 곧 깨어났다.'

이때 두통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여 Tegretol 400mg, Valium 10mg # 2 p.o.로 바꾸어 처방하였다.

3주후 환자의 두통은 좋아졌으나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며 감정조절이 잘 안되어 화를 잘 내게 된다며 월경기간중 특히 더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는 자신이 1년동안 사회생활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것 같고 특히 아버지한테서 피해를 많이 보았다면서 '과거에 심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간질발작을 하느냐?'며 외상적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자에게 던지시 암시하였다.

1달후 환자는 남자 친구와 결혼 문제로 다투다가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팔다리 마비 증상을 일으켜 동네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곧 회복이 되어 집으로 왔으나 그 이후 잠이 잘 안오고 밤에 또 전과 같은 환청이 들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술을 조금 마셨는데 3일후 다시 남자친구와 길을 건다가 또 한 번 경련발작을 하였다.

그후 약 5개월 동안 환자는 두통 증세만 호소하였고 경련 발작은 없었으나 남자친구 문제, 아버지와와의 불화 등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다가 6월 중순경 아버지 유리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때 직원 한 사람이 피가 날 정도로 다쳐 실려가는 것을 보고 딸꼭질이 나더니 움직이면 곧 쓰러질 것 같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 사람이 나와 관련된 것 같고 나처럼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약 2주후에 회사 수급 문제로 상대방과 전화로 다투다가 또 한 번 경련 발작을 하였다. 7월에 와서 환자는 외래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매우 주저주저 하더니 자신의 과거의 괴로운 사건들을 터놓기 시작했다. 이때 환자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으나 경련 발작은 하지 않았다.

'국민학교 5학년때 오빠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

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다투고 새벽기도회에 매일 나왔다. 그날 아버지가 내 젓가슴을 더듬고 성기부분을 만져, 아버지가 왜 그래요? 하니까 씩 웃고 쳐다보는데 마치 짐승 같았다. 그후로도 매일 만지고...엄마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아버지가 성적 접촉까지 하였다. 고등학교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밋고 창피해서 얼굴도 들 수 없었으나 점점 나 자신도 그런 행위에 빠져드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그후로 머리 아프고 메시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길가다가 쓰러지는 증상이 생기더니 부모님이 큰일 났다고 관심 갖고 병원에 데려가고 지나치게 염려하니까 내 성격도 변해서 부모한테 내마음대로 하게 되고 돈도 많이 요구하고 마치 내가 공주병에 걸린 사람같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등 많이 변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내가 환상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망상에 빠진 것 아니냐? 고 처음엔 믿지 않다가 남자 친구와 성 접촉할 때 내가 소리치르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니까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남자 친구와 결혼하고 싶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차마 못하겠다. 내 자신이 밋고 가증스럽고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일 저지를 것 같다.'

다음주에도 환자는 계속 자살에 대한 생각, 살인하고 싶은 충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잔인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럴때는 술 먹고 잊어버리려 하는데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 내가 아닌 다른 나쁜 여자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비웃고 있다는 등의 증상에 관해 상담하였다.

9월에 추석 다음날 남자 친구와 서울랜드에 갔다 오는 도중, 머리가 아프고 팔 다리 기운이 빠지면서 또 증상이 나타날 듯 하더니 없어졌다. 그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모두 다 털어 놓으니까 매우 화를 내면서 병원이 고해성사 하는데냐? 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흥분하는데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맥주병을 깨서 창문으로 던지기만 했다.

10월에 와서 환자는 '자신의 두통이 생리기간과 일치하는 것 같다. 술 먹고 스트레스 겹치면 꼭 머리가 아프면서 쓰러질 것 같다. 남자 친구가 불쌍하면서도 나를 구해 주지 못하니 밋기도 하고 내가 의동딸이고 아버지와 의 근친 관계를 알고 나서는 내 재산이나 한 푼 떼어 가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털어 놓았다.

11월 초까지 환자는 경련 발작은 멈추었으나 두통과 우울 증상은 아직 그대로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 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가족이 있는데서 심한 "acting out"을 했다.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니 화가 나면서 아버지 손을 물어 뜯고 얼굴을 핏키고 발로 찼는데 내자신이 아닌 것 같았고 '네 까짓게 무엇인데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하느냐?'고 대드니까 엄마와 오빠가 너무나 놀라 말리지도 못하더라, 정신은 멀쩡한데 기운이 없어 주저앉자 오빠가 부축하여 이층 방으로 옮겼는데 창문 유리 깨고 깨진 유리조각이 침대에 위에 떨어졌으나 그 위에 그대로 누워 아침까지 뜯 눈으로 세웠다.

이 사건 있기 바로 전 날 남자 친구가, 신문에 친부가 딸을 성폭행하여 어머니가 알고 친부를 고발하여 구속된 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다. 이날 마음속에서 충으로 아버지를 위협할까 하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왔었고 그날 밤 꿈에 아버지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자 환자는 빠져 나왔으나 아버지는 못나오고 비행기와 함께 추락했었다. 이날 환자는 아마도 내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꿈속에서나마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다행이다.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 이제 쓰러지는 증상은 없어질 것 같다면서 아버지를 매일 매일 쳐다본다는 사실이 두렵고 또 어머니에게 미안하여 빨리 결혼하던지 나가서 혼자 살아야겠다며 다음 치료를 약속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후 현재까지 발작증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찰

가성경련발작은 감정장애의 한 양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이런 행동의 병리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경련발작은 종종 히스테리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연구자들¹³⁾에 의하면 히스테리와는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최근 한 위원회¹⁴⁾에서는 반복적이고 다양한 신체적 호소를 갖는 만성장애인 신체형 장애에 국한시키고 있으나 양성경련발작환자의 많은 수가 이런 임상 진단기준에 속하지 않고 다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양성경련발작은 동일한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 사회적 요소를 지닌 증상 복합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¹⁵⁾ 또는 흔히 대뇌 장애를 갖는 히스테리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¹⁶⁾¹⁷⁾.

가성경련발작을 진성경련발작과 구분하는데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정신장애의 가족력과 개인력, 자살시도, 성적부적응과 최근의 정동중후군이다⁶⁾. 이런 가성경련발작환자는 우울증, 히스테리성 성격, 그리고 경계선 정신증이 비교적 더 많은데¹⁸⁾ 성격심리검사(MMPI)에서도 히스테리(Hy), 우울증(D), 건강염려증(Hs)척도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성경련발작과 가장 관련이 깊은 원인적 요소는 소아 시절에 받았던 성 학대로 볼 수 있고, 특히 정신과적으로 가장 심한 정신병리적 소인을 나타내는 부녀간의 근친상간 관계이다. 특히 소아기 성학대는 성인기에 와서 여러 정신증상을 초래하는데 그 중 해리증상의 원인적 요소가 되어 해리성 주체성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Freud와 Janet이 20세기 초에 임상경험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⁸⁾¹⁹⁾.

Gross⁷⁾는 4명의 사춘기 소녀에서 근친상간으로 인한 성폭행 후 히스테리성 간질발작을 초래한 사례를 보고했는데, 이들은 잘 낫지 않는 경련이외에도 자살시도, 자기 파괴적 행동,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두려움증이 있었고 특히 해리성 주체성 장애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해리증상을 나타냈다.

Goodwin⁸⁾도 가성경련발작증세를 지닌 6명의 사춘기 소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4명이 근친상간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복합부분 발작증세는 그들의 성적 긴장감을 조절하기 위한 자기 방어 및 통제에 한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가성경련발작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⁹⁾.

첫째는 소아기 성학대로 인한 고통스런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변형된 자아나 성격상태에 의해 방어기전이 무너지면서 가성 경련 발작으로 표현된다. 둘째는 가성 경련 발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성인기 성폭력에 대한 느낌이다. 세째는 견딜수 없을 정도의 생활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자아가능이 약화되어 나타난 증상, 네째는 가성경련 발작으로 잘못 오인된 공황발작 증세이다.

그러나 이중 첫번째 양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련발작은 성학대로 인한 고통을 상징적인 재활성화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간질발작 운동은 분노(주먹을 흔드는 증상), 두려움(땀 짙어지고 있고 있거나 떠는 증상), 성적 활동(몸부림 치는 행위)을 표현하게 하고 학대와 관련된 그 이상의 고통스러움을 표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와같은 증상은 해리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해리 증상과 유사하여 소아기 성학대를 경험한 여자 환자에서 오랜 기간 두통이나 히스테리성 경련발작으로 약물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자살의도 내지 시도증상, 자기파괴적 행동,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에서 나타나는 Schneider일급 증상등이 있을 때는 해리성 주체성 장애(과거의 다중 인격장애)로 진단 하기도 한다¹⁹⁾²⁰⁾.

이 증례에서 환자는 경련발작 증상 이외에 자신의 내부에서 들리는 환청, 손목을 칼로 자해하는 자기파괴적 행동, 자살충동, 아버지를 죽이지나 않을까 하는 타살에 대한 두려움 등의 증상이 있었고 해리증상 척도 점수가 72점으로 높은 척도 점수를 나타낸 점, 또 환자의 성격이 전형적인 히스테리성 성격으로 해리성 주체성 장애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Gross⁷⁾는 소아 시절 근친상간 관계로 인한 경련 발작은 성적 상징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신치료 과정에서 성적 갈등이나 성학대로 인한 수치심이 감소하면 경련발작증세도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이 환자에서도 고2때부터 나타난 경련 발작은 아버지와의 근친관계로 인한 수치감, 또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한 표현이라고 여겨지며, 또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양상의 표현으로도 생각되는데 역시 치료 중반기에 와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표현하고 정화시킴으로써 경련 발작의 증세는 사라졌다.

이와같이 젊은 여성에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나타난 가성경련발작은 해리성 장애의 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 시절의 근친상간으로 인한 성학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이상이나 뇌파검사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의 개인력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약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치료과정을 통해서도 가성경련발작증세는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저자는 기질적 이상없이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경련발작을 하는 젊은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어린 시절의 근친상간 관계로 인한 정신적 외상 때문에 나타난 해리증상과 더불어 동반된 가성경련발작증세임을 발견하였고 정신 치료로 발작 증세가 호전되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단어 : 가성경련 발작 · 해리 · 근친상간.

References

- 1) Bowman ES : *Etiology and clinical course of pseudoseizures, relationship to trauma, depression, and dissociation. Psychosomat* 1993 : 34 : 333-342
- 2) Krumholz A, Niedermeyer E : *Psychogenic seizures : a clinical study with followup data. Neurol* 1983 : 33 : 498-502
- 3) Lempert T, Schmidt E : *Natural history and outcome of psychogenic seizures : a clinical study in 50 patients. J Neurol* 1990 : 237 : 35-38
- 4) Gumnit RJ, Gates JR : *Psychogenic seizures. Epilepsia* 1986 : 27(suppl 2) : S124-S129
- 5) Guberman A : *Psychogenic seizures in non-epileptic patients. Can J Psychiat* 1982 : 27 : 401-404
- 6) Roy A : *Hysterical seizures. Arch Neurol* 1979 : 36 : 447
- 7) Gross M : *Incestuous rape : a cause for hysterical seizures in four adolescent girls. Am J Orthopsychiat* 1979 : 49 : 704-708
- 8) Goodwin J, Simms M, Bergman R : *Hysterical seizures : a sequel to incest. Am J Orthopsychiat* 1979 : 49 : 698-703
- 9) LaBarbera JD, Dozier JE : *Hysterical seizures : the role of sexual exploitation. Psychosomat* 1980 : 21 : 897-903
- 10) Goodwin J, Gross M : *Pseudoseizures and incest (letter). Am J Psychiat* 1979 : 136 : 1231
- 11) Shen W, Bowman ES, Markand ON : *Presenting the diagnosis of pseudoseizure. Neurol* 1990 : 40 : 756-759
- 12) Standage KF : *The etiology of hysterical seizures. Can Psychiatr Assoc J* 1975 : 20 : 67-73
- 13) Vanderzant B, Girrdani S, Berent FE, et al : *Personality of patients with pseudoseizures. Neurol* 1986 : 36 : 664-668
-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 241-244
- 15) Ramani SV, Quesney LF, Olson D, et al : *Diagnosis of hysterical seizures in epileptic patients. Am J Psychiat* 1980 : 137 : 705-709
- 16) Merskey H, Trimble M : *Personality, sexual adjustment, and brain lesions in patients with conversion symptoms. Am J Psychiat* 1979 : 136 : 179-182
- 17) Whitlock FA : *The etiology of hysteria. Acta Psychiatr Scand* 1967 : 43 : 144-162
- 18) Krumholz A, Neidermeyer E, Alkaitis A, et al : *Psychogenic or hysterical seizures. 11th epilepsy international symposium, Florence, Italy, 1979 Cited by Guberman, Psychogenic pseudoseizures in non-epileptic patients. Can J Psychiat* 1982 : 27 : 401-404
- 19) Putnam FW, Guroff JJ, Silberman EK, et al : *The clinical phenomenology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 review of 100 recent cases. J Clin Psychiat* 1986 : 47 : 285-293
- 20) Coons PM, Bowman ES, Milstein V :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 a clinical investigation of 50 cases. J Nerv Ment Dis* 1988 : 176 : 519-529